

LOCAL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나주, 정주여건 개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온힘’

순천,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지역공동체 등 230여명 선발

순천시는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23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공공근로사업 17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0명, 총 230여명이다. 근로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참여자는 정보와 추진 분야, 공공서비스 지원 분야, 환경정비 분야 등 약 109개의 사업장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가구 소득액,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한 뒤 오는 8월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고흥, 농촌 인력난 해소 노력 후계농업경영인 기능요원 모집

고흥군은 오는 20일까지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현역 복무 대신 본인의 영농 기반에서 영농 활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6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이다.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이 불가하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학·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날부터 현역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은 23개월 동안 영농 활동을 하게 된다. **고흥=김두성 기자**

농식품부 공모 선정 337억 투입 재생활성화 추진 운병태 시장 “동부권 5개 읍면 균형 발전 기대”

나주시가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한 대규모 재생활성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촌협약’ 공모 선정으로 국비 23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7억원을 확보하며 재생활성화 사업에 나선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6년부터 5년간 총 337억원 규모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동부권 5개 읍면(남평읍, 금천면, 산포면, 봉황면, 다도면)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시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 시범지구에 참여하고 탄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이뤄낸 결과다.

시는 농식품부가 선정한 전국 5개 농촌 공간계획 시범 지자체 중 하나로 지난 1년간 선도적인 모델 구축에 주력해 왔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주거, 정주 여건,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농촌 삶의 질을 종합적

으로 향상시키는 22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됐다.

시는 2021년에도 농촌협약에 선정돼 현재 납부권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변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2026년까지 총 327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번 동부권 중심의 농촌협약 사업 선정으로 권역별 균형 발전을 통한 체계적인 농촌 개발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시는 연말까지 기존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과 수립 중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하고 농식품부 검토와 승인을 거쳐 세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나주시장 간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집행에 돌입한다.

운병태 시장은 “이번 동부권 농촌협약과 영산강변 생활권 사업을 양축으로 삼아 권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며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농촌, 활력이 살아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해남군은 최근 전남대와 지속가능한 농어촌·농어업 성장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남,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선도모델 조성

전남대와 농어업 성장모델 구축 업무협약

해남군은 최근 전남대와 지속가능한 농어촌·농어업 성장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병현관 군수와 이근배 전남대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와 농어업 혁신을 선도하는 전략적 하브로 도약하는 것을 공동 목표로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새 정부의 공약과제인 지방대 육성 및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과 미래 농산업 전환을 위

한 R&D 강화 등과 연계해 이뤄지는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연구기관 연계형 교육·정주 도시 조성, 해외농업개발 등 국제 교류를 위한 인재양성 및 시스템 구축, 농어업 특화분야 교육 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전국 최대 농어업 생산기지인 해남군의 인프라와 전남대학교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선도모델 조성’이라는 공동 협력 사업을 구

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공동추진단과 농어업 관련 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해 실행력을 높이고,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병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남의 농어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 구체적인 성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대학교와 함께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장성,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 나서

7~8월...불법배출 사전 차단

장성군이 7~8월 두 달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녹조 확산과 공공수역 오염 등 2

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여름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단속기간을 갖고, 본격적인 현장 감시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하천 수위 상승 시 오염물질 유출 위험이 높은 사업장,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 20개 장소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2개 단속반을 파견해 현장순찰과

예방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에 자체점검 사전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며 “사업장 자체점검 등 오염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완도, 블루푸드 테크 산업 활성화 박차

한국식품연구원과 맞손...과제 공동 수행 등 협력

완도군은 최근 한국식품연구원과 해양바이오 및 블루푸드 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은 해양바이오 및 블루푸드 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해양바이오·블루푸드 관련 과제 공동 수행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분야는 블루푸드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을 위한 정보 교류, 바이오를 접목한 블루푸드 테크 분야 연구 프로그램 기획 및 산·학·연 협력 과제 공동 수행, 지역 해양바이오·블루푸

드 테크 역량 개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해조류 등 식품 원료 확보 및 건강 기능 식품 효능 평가 협력 등이다.

신우철 군수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협력해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와 블루푸드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청년 블루푸드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블루푸드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바이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 데이터(IoT), 3D 프린팅, 로봇과 같은 혁신 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하는 ‘블루푸드 테크’를 육성 중이다.

완도=김예숙 기자 knk1831@

함평, 벼 무논점파 도입...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생산비·노동력 절감 기대

함평군이 농번기 인력 부족과 고비용 구조로 이중고를 겪는 벼농사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군은 최근 읍대면, 학교면 일대에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단지’ 24.5ha, ‘가루쌀 직파재배 생산단지’ 108ha 등 총 132.5ha 규모의 원줄기 무논점파 재배단지를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쌀 산업은 가격 대비 생산 비용이 높아 국제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한계점을 맞이한 가운데 농번기 인력난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다.

군은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직파재배, 드문모심기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벼농사 생산비 절감과 농번기 농업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무논점파 기술은 별도의 육묘·이랑 작업 없이 눈에 직접 씨앗을 파종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현실에 적합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용범 농업회사법인 수화정 대표는 “이번 벼 원줄기 무논점파재배 신기술도입으로 경영비를 줄이고 농사도 수월해져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벼 원줄기 무논점파재배 기술은 기존 직파재배의 단점을 보완해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에 효과가 높은 기술이다”며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신기술을 적극 확대·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www.중앙미용학원.co.kr

취업, 창업, 자격증 합격률 1위

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 중앙미용학원

“미용교육의 선두주자!! 52년 정통 명문 뷰티 전문아카데미”

▼ 고3 미용위탁교육 지금 접수중!

3월 ~ 12월 국가자격증 + 취업실전교육

헤어 · 피부 · 네일 · 메이크업(수강료, 재료, 수업) 전액 국비지원

▼ 취업 성공패키지 훈련비 · 재료 100% 무료(1유형 참여자)

- 매월 참여 수당 및 취업성공시 수당 지원
- 만 18세 이상 실업자 누구나 가능 (단, 위허소현의 경우 만 15세 이상 가능)

18세이상

실업자 · 재직자 전과정 전액 국비

- 헤어미용국가자격증
- 피부미용국가자격증
- 네일아트국가자격증
- 메이크업국가자격증
- 이음사국가자격증

- 헤어실전취업(연구)
- 남성커트 숙성과정
- 피뒀여성커트취업과정
- 네일아트연구취업과정
- 피부미용연구취업과정

현재접수중

주 · 야간 헤어 · 피부 · 네일 · 메이크업 · 미용사

취업 · 창업실전교육

미용 · 이음 · 기능장

인문계 고3예정자 미용100% 지원

디자인·승급·개업·미용실운영 고객실습교육

피뒀포인트성형트트숙성
남성트트숙성교육

훈련비
재료
교육비

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 중앙미용학원

동구 금남로 232-4 (금남로 2가, 우리은행 옆)

미용 · 이음기능장 광주, 전남 지정 교육원
피뒀포인트교육 / 한국최초 멤버스쿨

접 · 수 · 문 · 의 062) 225-9888